

[성주간] 성지주일 수난복음 나해(짧은 복음)

마르 15, 1 - 39



마 르코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



아 침 이 되 자 수 석 사 제 들 은 곧 바 로 원 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곧 온 최 고 의 회 와 의 논 한 끝 에, 예 수 님 을 결 박 하 여 끌 고 가 서



빌 라 도 에 게 넘 겼 다.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



["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입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셴 다.



["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 그 러 자 수 석 사 제 들 이 여 러 가 지 로



예 수 님 을 고 소 하 였 다. 빌 라 도 가 다 시 예 수 님 께 물 었 다.



["당 신 은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소? 보 시 오. 저 들 이 당 신 을 갖 가



지 로 고 소 하 고 있 지 않 소?"] 예 수 님 께 서 는 더 이 상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다른사람)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주

(해설자)

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다른사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

(해설자)

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

(회중)

(해설자)

중은 거둑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

(다른사람)

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

(해설자)

(회중)

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해설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

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틀 안



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부대



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워어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



하였다.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옆드려 예수



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



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



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



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걸옷을 나



누어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



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



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



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

(다른사람)



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해설자)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다른사람)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



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



렸다. 낮 열두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



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



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사박타니?"] 이는 번역



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



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신다



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대며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 나 봅시다."] 예수님께

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해설자)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

(다른사람)

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사

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해설자) (회중)

주님의 말 - 씬 입 니 다. 그리 - - 스도 - 님 찬 미 합 니 다.